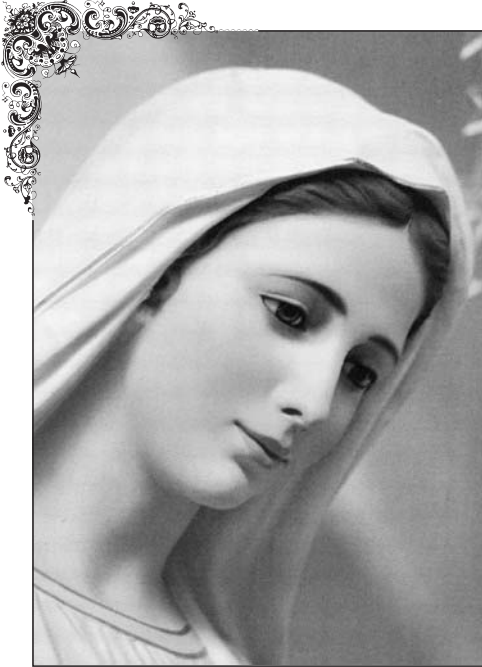




Medjugorje

메주고리에

April, 2009 제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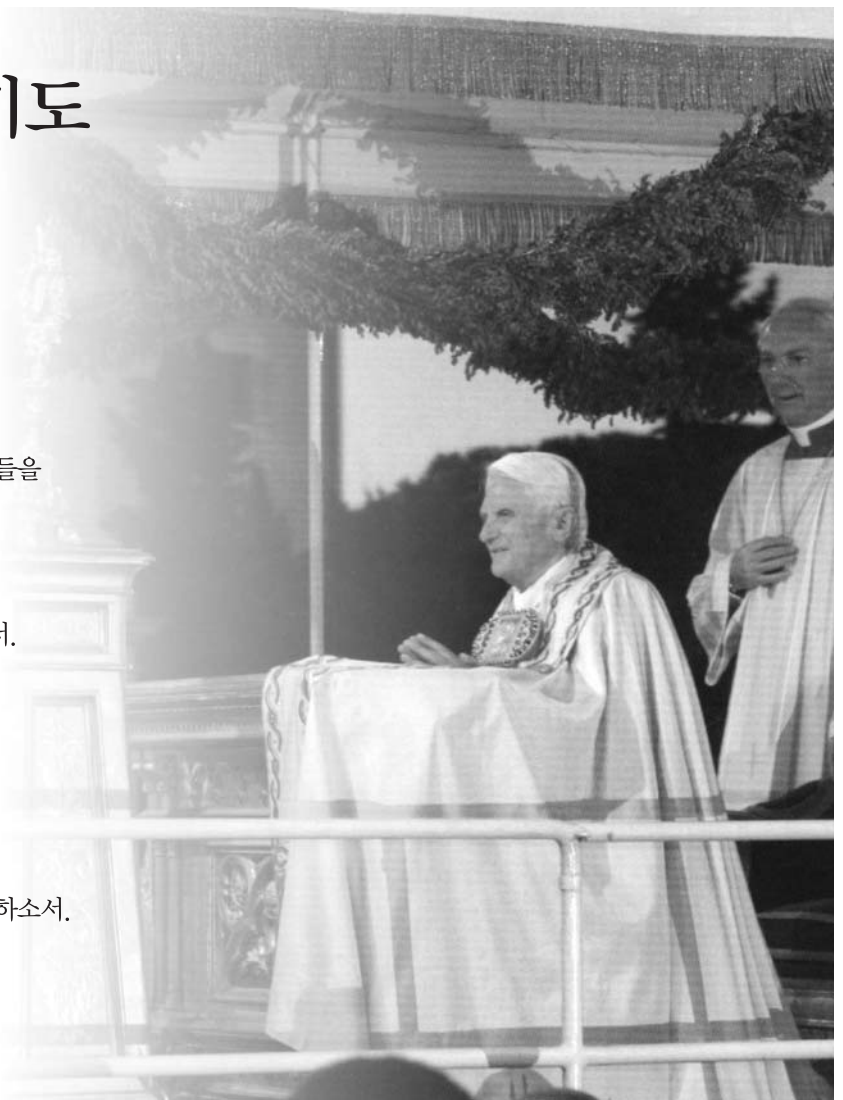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 봄에,
너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기도로 너희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
어린 자녀들이,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성심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너희 자신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2009년 3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 창득 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동생가족의 안정과 신속한 영주권 진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성모회장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필요한 은총을 주소서.
- 폐암으로 고생하는 000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감포 공소의 발전과 모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세요.
- 낙태된 어린 영혼들과 그 부모들을 위하여
-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 성모님, 좀 더 여유롭고 지혜로운 아내, 엄마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세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되도록 봉헌합니다.
-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성모님의 전구에 감사드립니다.
- 아기를 낳지 못하는 000를 성모님께 바칩니다.
- 죽은 모든 영혼들과 모든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선교사업과 모든 수도자, 성직자, 평신도를 위하여...
- 성모님, 결혼한지 1년이 됩니다. 꼭 아기를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아들에게 힘을 주소서.
- 기도속에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사랑, 기쁨, 평화를 위하여
- 죄인들의 회개와 고통받고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 모든 일가 친척 처가분들이 하루 빨리 주님의 품으로오시기를
- 평화의 모후님, 마음의 상처받은 이들이 평화를 얻도록 빌어주소서.
- 태어나지 못한 아기 영혼의 안식과 다시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남편이 마약중독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작은딸과 6개월만에 세상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
- 한국에 계신 엄마 잼마 건강하시고 오래사시고
- 오빠 동생들 제부 조카들 사업과 건강 성사정위해
- 언니와 조카들 엄마와 할머니에게 잘하길 기도, 성가정위해
-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주세요
- 성모님,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 주님, 제 남편의 회개하는 삶과 정결된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아버지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모님, 대니와 크리스티나가 거룩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보살펴주소서
- 세계 평화를 위하여 특히 분단된 조국을 위하여 지향드립니다.
- 00를 마약과 나쁜친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유, 회개를 위해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첫출산을 도와주시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잘 키울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4월달 메주교리에 순례 때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메주고리예를 직접 가서 보라고 말하고 싶다

조민현 신부 메이플 우드 한인 성당

나는 2006년 메주고리예에서 열리는 청소년 웨스티발 순례를 갔었다. 메주고리예에서는 매년 8월 첫 주에 성 야고보 본당의 주최하는 젊은이들에게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젊은이들의 축제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1988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원하셨으며 자신들의 삶에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지금은 돌아가신 슬라브코 신부님이 만드신 행사이다.

나는 그곳에서 수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내면에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과 성모님께서 자신들을 메주고리예로 부르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축제 동안 세계 각 곳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은 비록 언어와 얼굴색은 달라도 신앙과 믿음은 이런 조건들을 초월하는 공통어임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다. 또 그들을 위한 음악은 같은 내용의 교회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생동감이 있었다.

야외 제대에서 봉헌되는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미사와 성 시간, 은혜로운 묵주기도, 고해 성사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자신들의 성소를 되돌아 본다. 성당 주위에 있는 고백소 앞과 주변의 잔디 밭과 풀밭에서는 고백성사를 보고자 하

는 순례자들이 하루 종일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메주고리예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례자들이 오지만 특별히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메주고리예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하여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묵주를 손에 들고 끊임 없이 기도한다. 길을 건너나 앉아있는 이들, 조용히 기도하는 이들의 손에는 한결 같이 묵주가 들려있었다. 무척 인상적인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곳의 사제와 수도자들의 얼굴이 한결 같이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화와 거룩함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들뿐이 아니다. 나는 메주고리예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다.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평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메주고리예는 눈으로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오죽하면 그곳을 칩박한 땅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제 신앙과 믿음의 상징이 된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시간을 지냈길래 그들의 모습에 얼굴에서는 마치 영원히 없어지지 않

을 그토록 평화로운 얼굴과 기쁨이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 대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메주고리예를 직접 가서 보라고 말하고 싶다.

2009년 6월 25일은 성모님 발현 28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곳을 통하여 더욱 확고한 신앙의 길을 분별하고 갔는지는 오직 성모님과 예수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들은 발현산에서 목격자 이반을 통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기도 했으며 아침 일찍 십자가산에서 목격자 비스카가 이끄는 기도 그룹과 함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기도 한다. 성당 주위에 있는 고백소 앞과 주변의 잔디밭과 풀밭에서는 고백성사를 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이 하루 종일 긴 줄을 이루었으며 오후에는 목주기도와 미사, 성 시간이 진행된다. 성당에서는 성체 조배가 계속되고 있으며 순례자들은 부활 청동상, 발현산, 십자가산, 그리고 근처의 들과 숲 속에서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만나는 많은 이들과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은총과 체험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발현목격증인 이반은 행사 초반기의 때에 성모님께서 수 많은 젊은이들을 보시고 몹시 기뻐하셨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오늘 저녁 이렇게 많이 참석한 너희들을 보니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교회와 우리들이 올해 젊은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몹시 행복하다. 그들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모님께서 발현 초부터 우리들의 도움을 바라셨다는 것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너희들 없이 나의 계획을 실행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 나는 가정과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일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한다. 가능하면 많이 기도하여라. 매일 매일 너희들의 영을 굳세게 하여라... 너희들의 어머니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린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서로 서로 도와주어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젊은이들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발현 목격증인 이반은 매일 성모님을 만나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와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마약과 술, 섹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분명치 않은 수 많은 위험한 오락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젊은이들의 영을 빼앗고 있으며 그들에게 하느님과 교회를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M**





그분의 계획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포기과 기도 그리고 보속의 이 시기에 나는 너희를 다시 부른다. 은총으로 너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를 변화시키도록 은총에 너희 자신을 맡겨라. 어린 자녀들아, 회개하고 하느님과 너희 각자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2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포기과 기도 그리고 보속의 이 시기에 나는 너희를 다시 부른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인 오늘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포기과 기도 그리고 보속의 이 시기에 나는 너희를 다시 부른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과 기도 그리고 보속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포기할 것입니까? 이기적인 우리 자신, 재물에 대한 욕심, 지배욕, 쾌락, 교만, 증오 등 그 항목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인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하느님 자신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장애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과 거룩함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과 거룩함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지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게 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참된 포기의 삶을 살 수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있고,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오로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로마 8,35,3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의 보속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순절이 보속의 시기임을 상기시켜주시므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무런 죄 없으셨던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보속을 행해야 합니다. 보속을 행하는 방법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어떤 사람은 금요일만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병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보속으로 봉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랑의 보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 너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를 변화시키도록 은총에 너희 자신을 맡겨라. 우리 자신의 회개의 첫 걸음은 고백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3)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성사를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성모님

께서는 "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 하심으로써 우리의 발걸음을 고백소로 향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명을 받아 죄를 사하는 권한을 받은 사제만이 그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소에 들어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제를 통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던 은총 지위를 다시 찾게 됩니다. 고백성사를 통해 받은 주님의 은총은 굳게 닫혀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열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은총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그에 온전히 맡기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 26, 39)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회개하고 하느님과 너희 각자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백성사를 보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다는 첫 번째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고백성사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느님에게로 향하고, 죄를 피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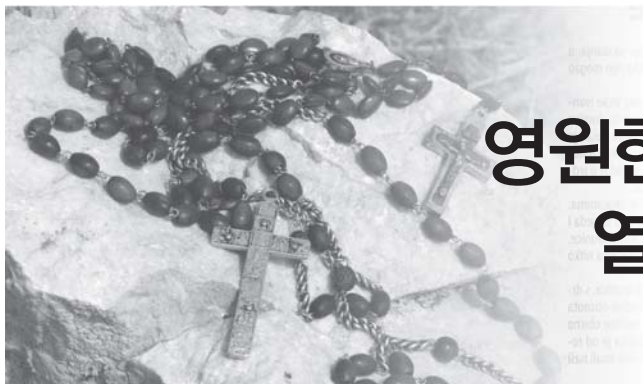
신을 맡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미리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순전히 자녀들의 안녕과 선을 위해서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와 비교해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그분의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이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하느님 아버지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시는"(마태 5,45)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모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에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며 40일 동안 기도하며 단식하셨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2009년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포기과 기도의 모범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셨던 당신을 본받게 하소서. 예수님, 저희를 위해 온갖 모욕과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당신처럼, 저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찾게 해주소서. 예수님, "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신 당신을 본받아 저희도 매일 일상에서 저야 하는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고통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하고 응답하셨던 당신처럼 저희도 포기하고 기도하며 보속하라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아무런 죄에도 물들지 않으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굳게 믿으며 고백성사를 보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과 저희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구하여 주소서.



영원한 생명에 너희 자신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 봄에, 너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기도로 너희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 어린 자녀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성심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너희 자신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3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 봄에, 너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기도로 너희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 봄기운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만물을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활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자연의 이치가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도 겨우내 얼어붙어 있는 대지처럼 여전히 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기운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채널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느님의 기운이 우리 영혼 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운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서는 이번 달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정점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시작되는 부활성야에 어둠으로 상징되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시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경축하기 위해 부활초를 든 사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세 번이나 외칩니다. 이 외침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 12, 46절 참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라."고 간청하시는 성모님의 초대에 '오늘 그리고 지금' 응답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성심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너희 자신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 비록 기도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협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도록 만들고,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기도는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시고, 우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시는 하느님'(에제 36,26절 참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과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그분 성심의 용광로에 우리의 마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성심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 자신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성심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너희 자신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기억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이 사랑의 기억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님 품에 안기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서울 대교구 사제로 서품 되기 전 당시 교구장이셨던 김 추기경님께서 모든 교구 사제들 영명 축일에 직접 전화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제서품 1년 차 신부로서 처음 맞이한 제 영명 축일인 1990년 12월 26일, 그 말대로 정말 추기경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시어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높은 분이 자기를 기억해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우주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대해 염려하고 계시다면, 세상에 것처럼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메주고리예를 통해 매일 발현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천상의 메시지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더군다나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이전에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올 2009년 3월 18일 발현목적중

인 미리야나에게 발현하시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다 보시고 성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 것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전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빛이시고, 저희 인생과 영혼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가르침대로 기도로 저희 영혼을 깨워 부활하신 당신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나 저희는 저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그 빛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은총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를 결코 당신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당신의 성심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어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저희 자신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주소서.

성모님, 당신의 가르침과 사랑,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셨던 당신처럼 저희도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전구하여 주소서. **M**



메주고리예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부활의 증인

593.97. 3.30. 카폴리베리(리보르노).
예수 부활 대축일



너희 천상 엄마와 더불어
이 부활절의 심오한 기쁨을 만끽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당신 몸의 빛에 싸여 찬란하기 그지없는 신성을 드러내시며 내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아들로서 허리 숙여 내 모성적 고통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주셨을 때, 나의 마음은 충만한 파스카 기쁨에 온통 휩싸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나는 그렇게 그분 부활의 말없는 첫 증인이 되었다. 첫 증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당신 어머니와 이 파스카 기쁨의 첫 열매를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말없는 증인이 된 것은 하느님의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을 세상에 선포할 사명이 경건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 당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 안에 믿음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사가 이제 끝장났다고 여기고 있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경건한 여인들에게는 서둘러 무덤으로 가 보라고 했고 -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 신성의 광채에 싸여 내게 처음 나타나신 모습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이다.

복음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부활의 말없는 증인이 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나의 소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공생활 동안 선포하신 말씀을 말없이 새겨 듣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 선포에 대해서도 나는 말없이 있어야 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맡겨진 임무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서 천국의 영광에 싸여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활로 증거해야 할, 기쁜 임무였다. 나는 오늘날에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차게 선포하고 용감하게 증거하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선포도 쓸데없는 일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 말씀의 진실성을 믿을 근거도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미리 알려주신 대로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다운 영광의 광채에 싸여 미리 뽑으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어머니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눈보다 더 흰 그분을 뵈었다. 그 신적 아름다움이 내 삶에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특히,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을 용감히 선포하여라. 그분의 부활을 힘차게 선포하여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싸여 오실 그분을 기다려라.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감실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신적(神的) 신비이다. 미사 중에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내 피의 잔이다"(마태26,26-28)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축성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 이유는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신성한 몸과 피로 '성변화 (Transubstantiation)'하였기 때문이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요한6,55)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음식과 음료의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그 외양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병의 베일 뒤와 성작 안에는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인격체가 현존하신다. 그분은 영성체를 하는 누구에게나 당신을 주시며, 또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 안에 머무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하고 놀라운 단어 '성체 축성'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빵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가? 그것은 축성에 의해서이다. 축성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 거룩하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 사제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성체 축성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훌륭하고 놀라운 단어들이다. 그 단어들은 사제를 통하여 빵 조각과 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 즉 예수님으로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힘은 대천사의 힘을 능가하는 지고(至高)의 힘이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속하는 힘인데, 이 힘을 당신의 사제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바로 이 신성한 축성의 단어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대 위

에, 감실 안에 그리고 제병의 형상으로 계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교육 수준이 꽤 높은 한 이슬람교도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주교에게 물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에 주교가 대답했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됨으로써 당신이 몸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 이슬람교도가 다시 "예수님이 그 작은 제병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하고 묻자, 주교는 "주위의 풍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당신의 눈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눈 안에 저 넓은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을 하느님께서 하실 수 없을까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슬람교도가 "한 몸이신 예수님이 모든 제단들과 모든 축성된 제병들 안에 동시에 계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하고 묻자, 주교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연 또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바릇바닥에 던져 깨보십시오. 깨진 거울 조각들마다에 깨지기 전의 거울에 들어 있던 영상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영상이 아닌 당신이 여러 곳에 동시에, 축성된 제병 하나하나에 현존하십니다."

굳게 믿어야 할 신앙의 신비

그러나 이 모든 사건과 증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 현존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확신시켜 주는 신앙이며, 그 신앙 위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 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요한 14,6 참조)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우리가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할 하나의 신앙의 신비로 남겨주셨다. 성 토마스 아퀴노에게 노자성체가 모셔져 있을 때, 그는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신앙의 빛보다 천 배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영원하신 하느님의 성자를 모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보다 더 확실히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Mysterium Fidei (신앙의 신비)"라는 단어로써 성체성사에 관한 당신의 회칙을 발표하였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 신앙보다 더 순수하고 확실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녀 데레사를 시성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15세는 "성녀는 제병의 형상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뵈고 있는 복된 이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성 도미니코 사비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결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뵈지만 앓을 뿐이지, 나는 지금도 제대 위에 계신 그분을 뵈 수 있고 흠숭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체 조배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감실 안에 계신다. 티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 안에 계시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서 축성된 조그맣고 하얀 제병 안에 계신다.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어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제병의 형상으로 성합 안에 계신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시어 성부 오른편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서 제대 위에 계신다. 폴리오의 복녀 안젤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제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에워싸고 흠숭을 드리는 것을 환시 중에 목격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안네 신부는 "예수님께서서 저기 계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성 베드로 올리아노

에마르도 기쁨에 찬 열정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찾아뵙시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때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앞에 현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체 조배를 하고 성체 강복에 참여하는 것이 성인들의 비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방문하는 시간은 온전한 사랑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코린 13,8 참조)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감실 앞에서 보낸 시간이 제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티 없으신 성모 신심의 사도였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는 학창 시절부터 하루에 평균 열 번씩 성체 조배를 했다. 개학을 하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소성당으로 달려갔다. 오전에 다섯 번, 오후에 다섯 번을 방문했는데, 그중 매일 오후에 꼭 찾아가는 성당이 있었다. 그곳은 성체가 현시되어 있는 로마의 한 성당이였다.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도 학창 시절 학교를 오가면서 성당을 네 번씩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네 번씩 예수님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바로 앞에 성당이 있어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가?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주님을 방문하였고 일곱 자녀의 어머니였던 복녀 안나 마리아 타이지도 그렇게 했다.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헝가리의 왕비 성녀 엘리사벳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왕궁의 소성당 근처에서 놀곤 했는데, 그녀는 친구들이 안 보는 사이에 소성당 문 앞에 서서 자물통에 친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놀고 있지만 당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제 친구들을 강복해 주세요. 안녕!" 파티마의 세 목동 중 하나였던 프란치스코는 꼬마 목상가였고, 성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아이였다. 프



란치스코는 자주 성체 조배를 하고자 했고, '숨어 계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 감실 앞에서 되도록이면 오래 머물고자 했다. 그는 성체를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춘 누나였던 루치아에게 털어놓았다. 이 소년은 우리에게 감실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놀라게만 보이고,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성인들의 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체 조배는 신덕과 애덕의 행위이다. 신앙과 애덕이 있는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이고, 성인들은 신앙과 애덕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어느 주교가 신자들이 사는 한 촌락에 가게 되었다. 그곳의 집들은 모두 대문을 성당 쪽으로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당에 갈 수 없을 때 그 문 앞에 서서 주님의 집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였다. 즉 사랑하는 이와 의 일치성을 위해서였다. 하루는 어느 지혜로운 교리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만약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집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즉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분에게 달려가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고 있던 놀이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작은 희생을 할 수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시며 항상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너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있기 원하는 것을 고귀하고 가치롭게 생각했다. 우리도 성체 안의 예수님을 방문하던 성인들을 본받아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첫째,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방문하도록 하자. 성 요한 보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방문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잠깐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 그 시간을 늘려가도록 노력하자. 잠시라도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자. "예수님, 당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안에 오소서." 성 요한 보스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당신은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자주 방문하십시오. 당신은 그분께서 은총을 조금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가끔 방문하십시오. 당신은 마귀에게 공격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체성사의 예수님을 드물게 방문하십시오. 당신은 마귀가 당신에게서 멀리 달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자주 방문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성체조배는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당신에게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의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기억하도록 하자. "당신 일생의 모든 순간들 중 당신이 성체 앞에서 보낸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을 줄 것이며, 당신의 임종 때와 영원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M**



늘 우리와 함께

캘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

성체를 영할 때 우리의 영혼 육신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빵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고하며

일할 때 우리는 인간의 몸과 피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영성체 할 때에나 힘든 일을 할 때에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빛이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온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분을 아는

은총,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 그분을 섬기려는 용기를 주시라고 그분께 청하세요. 열정적으로 그분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모든 순간, 특히 감실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득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나요? 성체성사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영성체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밤낮으로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매일 한 시간씩 성체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서로의 사랑은 더욱 넓어지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더욱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듣고,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사랑을 향한 당신의 허기를 우리가 채워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허기진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바라시는 그분의 허기를 채워 드립니다. **M**





치유와 은총의 시간 열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피정이 시작되기 3 - 4 일 전쯤 아침에 보니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흔들리고 몹시 아팠습니다. 작년 12월 초에도 같은 증상과 심한 통증으로 이를 뽑아야 했기에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통증이 계속되면서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아파서 감히 살짝 만져보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피정일이 되어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남그레고리오 회장님이 폴비오 신부님과 알다 수녀님, 딸다 자매님, 한국에서 오신 평모단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성당과 호텔, 워싱턴 시로 안내 해드리면서도 통증으로 힘들 때마다 보속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보니 아픈 턱 부분에 부기와 열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치유와 은총의 시간”에 은총과 축복을 청하며 주님과 성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시간 때 알다 수녀님께서 이와 잇몸이 아팠던 분이 치유됐으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 순간 손으로 만져보니 제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통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덜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정이 끝나고 한달이 지난 지금은 그토록 아프던 치통이 없어지고 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아프기 전의 상태로 치유받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아팠던 턱을 다시 손으로 만져 봅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주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성모님, 사랑합니다!

김 아브라함 / 워싱턴 한인 성당

성모님,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할 수 없었다. 아니, 평생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가져 가야 할 비밀이었다. 나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도 하늘도 싫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저 하늘은 왜 저렇게 밝을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매일 발현하신다는 성모님도 나만은 외면하시는 것 같았다. 누군가 “치유와 은총의 시간”에 가자고 할 때 나는 웃었다. 그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가족들은 이유도 모르고 나를 중증 우울증 환자라고 한다. 차라리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미쳐 버렸으면 좋으련만... 억지로 끌려 간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이 말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모든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용서! 얼마나 내가 원하던 말이었나?.. 나도 그러고 싶었다. 어린 나를 성폭행하여 수 많은 세월 동안 절망하며 살도록 나를 어둠속에 가두어 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고 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 날, 나는 비참하게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성모님을 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성모님의 고통을 보았다. 그 성모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도 용서하여라...” 나도 모르게 가슴이 터지듯이 목놓아 울었다. 네, 성모님,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온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 익명 -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폴비오 신부님과 알다 수녀님의 치유 시간이 있기 5일 전부터 계속 배가 아팠습니다. 병원을 미처 못가고 있었는데 그날도 배가 아파 치유 시간에 그냥 집으로 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께서 지금 여기에 배가 아파 집에 갈까 망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픈 배가 치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 후 배가 아픈 것이 점점 없어지더니 집에 돌아 간 후에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 김데레사 -

불안, 초조감이 치유되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과 초조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저는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 불안에 떨곤 하였습니다. 그날 알다 수녀님이 심장이 치유 받고 있다는 말씀 이후로 심장 두근거림이 없어지고 불안, 초조감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아픈 곳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익명 -

아프던 무릎이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무릎관절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그날 치유의 시간 때에 수녀님이 아픈 무릎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후로 신기하게도 아프던 무릎이 다 낫았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 아프던 무릎에 보호막이 한 겹 싸여진 느낌입니다. 요즘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제 12처에서는 완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합니다.

주님, 찬미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형제님-

좋은신 우리 주님께...

저는 평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후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피정에 참석한 후 집에 와보니 아프던 무릎이 완전히 치유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위에서는 무릎이 또 아파지면 어찌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가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셔서 저를 치유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신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 자매님-

심한 두통이 치유 받았습니다.

3주 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 진통제를 2알씩 하루에 5번을 계속 복용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피정에 참석한 그날 수녀님이 아프던 두통이 나올 거라고 하실 때 갑자기 제 머리속이 아주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통이 점차로 사라져 지금까지 2번 밖에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 형제님-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남그레고리오 형제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13년만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요!

피정 둘째 날이었어요. 치유 예절이 거의 끝나갈 마지막 기도 때 저는 중환자석 앞줄에 앉아 있었고 바로 앞에서 알다 수녀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무릎팍이 아프고 다리를 잘 못쓰던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발바닥에서 무릎 그리고 넓적 다리로 훈훈한 기운이 돌아왔어요. (당시 무릎이 아파서 꿇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장궤틀을 세워놓으시고 물건들을 올려 놓으셔서 무릎이 나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치유 예절이 끝나고 성체 현시 시간이었어요. 13년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는 성체 앞에서요! 너무 기뻐합니다. 지금은 기도 때마다 계속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 김기선 아녜스-

굳어 있던 허리가 쪽 퍼졌습니다.

저는 20살 청년때 역기를 했는데 그때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도 그 때의 후유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힘든 가게도 오래하고 나이가 먹으니 그 후 좌골 신경통까지 생겼습니다. 마치 전기 물리 치료를 하는 것처럼 다리가 찌릿찌릿한 고통을 받고 늘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고 엉덩이를 내밀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번 피정에서 알다 수녀님이 오랫동안 허리를 못쓰고 통증이 있던 형제 몇몇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다 수녀님은 그 중 1명이 2층에 있다며 손을 들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하실 때 나는 내가 치유받은 줄도 모르고 누군가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들자, 알다 수녀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며 지금 그 자리에선 잘 모르나 나중에 치유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하셨습니다. 피정이 다 끝나고 아내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쥐나던 다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같이 온다리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찌릿찌릿하던 불쾌감이 사라지고 허리도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신기해 하면서도 웃으며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허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웠습니다. 이튿날 자고 일어났는데 온 몸이 정말 가볍고 오랫동안 굳어 있던 허리가 쪽 퍼졌습니다. 온 몸

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경천 요셉-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몇 달 전부터 왼쪽 어깨가 빠근히 아프고 목도 잘 안 돌아 가던 것이 치유 받았습니. 그리고 저는 여학교 때부터 선이 여럿으로 보이는 난시였습니다. 요즘엔 시력이 더 나빠져서 미사 때면 신부님 얼굴이 눈 코 입은 보이지 않고 마치 빵떡같은 둥그스름한 형체로만 보였습니다. 첫날 수녀님의 치유 시간에 통역을 하시는 마르타 자매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의 눈을 만지시며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셔서 우리들 사이를 스치며 지나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시야가 성당에 더 밝은 전구를 켜 것처럼



치유하시는 폴비오 신부님과알다수녀님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안과 의사가 내눈에 맞는 렌즈를 끼어준 것 같이 모든 것이 잘 보였습니다. 참 신기스럽습니다. 제 팔을 높이 들어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 깊이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 김란희 마가렛-

양쪽 귀가 다 잘들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한쪽 귀를 다쳐 그 때부터 한 귀로만 듣고 살았습니다. "치유와 은총의 시간" 피정에 참석했는데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양쪽귀가 다 잘들립니다. 정말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바칩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 정기주-

팔다리가 마비되었던 손녀 딸이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3살짜리 손녀딸이 있어요. 평소에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 이루 말할 수 없던 아이가 원인모를 병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팔다리가 마비되어 가던 손녀딸이 결국은 꼼짝도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녀딸을 살리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며 노력했으나 병원에선 퇴원하라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묵주기도하며 미사참례하고 아는 분만 만나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방에 손녀를 위해 미사를 넣고 있는 중에 이번 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날은 못 가고 두 번째 날 평소에 신심이 깊은 언니 손에 이끌려 "치유와 은총의 시간" 피정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예수님께 우리 손녀 스텔라를 고쳐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치유 시간에 알다 수녀님이 "집에 아픈 아이가 있는 할머니가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할머니의 손주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완치 되었으니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혹시나 손녀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불길한 소식을 들을까 무서워 전화도 못하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속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엄마 하며 꺽꺽 소리 지르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그제 누구냐고 물었더니 스텔라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펄펄 쏟아지는 것을 꼭 참으며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손녀 귀에 대고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들려 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하고 성당도 더욱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메주거리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죽은 이도 살려주시는 예수님, 주님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 데레사 -



성모님의 사도 요조 신부님 (11)



나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요!

사브리나 꼬비치 /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감옥에 계실 동안 몇 번이나 면회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요조 신부 : 투명 유리로 가로막힌 방에서 프란치스코회 수녀인 여동생 파비아나를 딱 한 번 면회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 저에 대한 소식도 몰라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면회하게 해달라고 구치소 앞에서 며칠이나 농성을 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제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로막혀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안부조차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 버림받았다고 느끼셨네요...

요조 신부 :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몇몇 사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봐라, 모든 교회와 사제들, 주교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다구!" 라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뭐 당신이 사제야? 웃기지마! 당신은 사제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구!" 그러나 감옥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 구치소에서 얼마나 지내셨습니까?

요조 신부 : 아이구, 밤이고 낮이고 아무때나 끌어내 취조하고 농락하면서 분노를 터뜨려서 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끌고와서 증언하라고 했으며 그리고 꼬지나라는 사람은 경찰들이 건네준 텍스트를 읽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같은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셨던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훌륭한 신부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증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끌려나갔습니다...

질문 : 신부님의 감옥방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요조 신부 : 사실입니다. 그 문은 아무나 잠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경찰관이 큰 열쇠로 감방 문을 열고 닫을 때면 구치소 전체에 소름이 끼치는 큰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소리는 꼭 사형장에서 듣는 총알소리들 같았습니다. ...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감방들이 있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침묵을 찢는 듯이 끔찍한 그 자물쇠 소리는 갇혀 있는 사람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지요. 얼마 전부터 제 감방 문이 잠기질 않았습니다. 그 경찰관을 무척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저는 항상 그 안에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현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 일 년 반 동안을 독방에서 혼자 지내셨습니까?

요조 신부 : 재판을 받기 전까지 모스타르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포차 교도소가 어디쯤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모스타르 거의 반 이상은 전쟁중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방에서 시계를 빼앗겨 시간 감각도 없었으며, 달력, 신문도 볼 수 없었고 교회와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의 심장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모든 교회가 항상 제 마음과 기도 안에 있

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조서들을 꾸며서 티토와 공산당을 반대할 설교를 했다고 심리적으로 저를 억압해서 함정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티토의 행동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요! 정치에는 관심없소."

질문 : 음식은 제대로 넣어주던가요?

요조 신부 : 물과 빵만을 원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음식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질문 :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요조 신부 : (신부님의 말소리가 자꾸 작아진다.) 공산치하에서 고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적으로 간주되었을 때, 투옥된 사람들은 항상 고문을 당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톨릭 사제가 아니라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주도했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질문 : 감방의 죄수들이 신부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요조 신부 : 저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감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감방의 죄수들은 최고형을 받은 살인범들과 마약, 알콜중독자, 근친상간 및 어린이 성추행범들 등의 범죄자들뿐이었습니다. 부인을 죽인 남편들도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들이 제발 빨리 죽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연일 신문에서 크게 보도되던 사건의 주인공들과 함께 자고,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공상당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를 그 감방에 처넣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골초흡연가였는데 경찰관이 담배를 압수해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는 제게 담배갑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봐!" 저는 "감사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형제와 누이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담배를 넣어줘서 수감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무척 가난해서 담배를 살 돈조차 없었고 외부로부터 단 한 번도 담배 한 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면회를 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1982년이었는데, 그 해는 바로 성프란치스

꼬의 죽음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한 해 내내 저는 죄수들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매일 호출당해서 심문도 받았는데 저를 위한 회교도 교감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랑 성당에 가고 싶으세요? 그럼, 저 좀 설득시켜 보시죠!"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못갑니다. 회교도인데 무슨 성당입니까? 이슬람 사원을 가야죠!" 교도관들은 저를 아주 심한 중노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창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는 그곳의 낡아빠진 기계위에 놓여진 엄청나게 큰 굵은 통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서 컨테이너가 이런 통나무들을 쏟아놓으면 기계들이 움직여서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이나 다리를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손가락 하나를 잃거나 손, 팔, 다리가 잘라진 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M**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94년 8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특별히 너희와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역자 주)이 너희 조국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어린 자녀들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그를 이 시기를 위해 선택했다. 나는 너희 선조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아들 예수님께 전구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사탄은 강하다. 그는 너희 마음 속에서 희망을 앗아가고 싶어 하니 특별히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3년 11월 24일 로마, 인도 해양지역 주교회의 (Indian Ocean Regional Episcopal Conference)에서 온 주교들이 교황님을 방문했을 때 교황님과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주교들과 나는 몇가지 대화를 여기에 적어본다.

질문 : 영적차원에서 볼 때 일련의 성모님 발현에 대해 특히 파리(Rue Du Bac)에서 가타리나 라부레에게 발현하신 이후로 라살레뜨와 루르드 그리고 파티마에 이르기까지를 성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황님 : 감옥에 있는 살인 미수자 알리 아가를 내가 방문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나 같은 전문 살인자가 어떻게 당신(교황)을 암살하는데 실패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날 무슨 축일을 지내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날이 성모님의 축일이었다고 그

"메주고리예에 관한 한, 어떤 것이라도 인정해 주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주교님들의 대화

에게 일러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그분이 그랬군! 성모님이 방해한 것이야!" 나는 이 기적을 참된 신앙의 견지에서 바라보며 또 이 기적이야말로 역사의 흐름인 현재에 성모님께서 개입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러시아를 성모님께 봉헌한 것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하게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이 봉헌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답 : 나는 틀림없이 러시아를 성모님께 봉헌하였으며 주교들에게도 이 봉헌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봉헌의 형식과 그 의미를 고려하여 이 일을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봉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루치아 수녀(파티마 목격증인)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성하게서 오스트리아 방문중 파티마의 세번째 비밀에 대하여 그 비밀을 밝히는 일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

성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이십니다

씀하신 것을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밀을 공개하면 지구의 일부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과 현재 처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립)누군가가 그 비밀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렇게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대답 :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던 일반 청중과의 대화 도중에도 미국인들이 "소련을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지요. 그러니 정치적인 악용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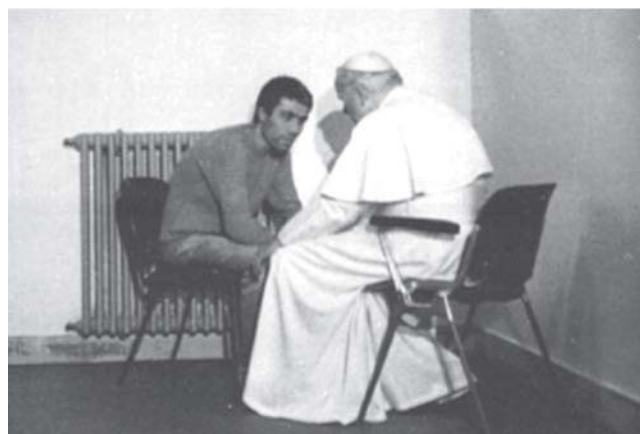
대답 : 우르스-폰 발타사르(Urs von Balthasar)가 지적했듯이 성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이십니다. 발현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로 메주고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디다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 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또 그 메시지들은 평화를 강조하고 있고 가톨릭, 동방정교, 이슬람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를 그곳(메주고리에)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들과 주교들은 교회에서 메주고리를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994년 10월 남미를 순회 중이던 슬라브코 신부를 만나게 된 파라과이 아스손 대주교인 펠리페-베니테의 경우가 그랬다. 그 대주교는 로마에 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곧 직접 교황에게 물어본 것이다. 교황은 그의 질문에 즉각 이렇게 대답하였다."메주고리에 관한 한, 어떤 것이라도 인정해 주시오." 메주고리에 소책자 '메주고리에, 교회의 입장은?'에서 인용된 교황의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 우리 복지회에서는 한가지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우리는 미확인된 발언들을 들으면 이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경우에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생존하고 계시

며 대주교 베니테님도 그리하므로 확인하기란 더욱 간단하고 확실하다. 의심스러운 내용을 사전에 본인의 확인도 없이 출간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교황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일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목격증인들은 이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각자 맡은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마리아의 경우는 성직자들과 하느님께 봉헌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맡고 있다.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그녀는 교황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몹시 교황님을 만나고 싶어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성모님도 포함해서) "나는 교황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교황 바오로 2세께서 남미에서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성모님의 발현동안 예기치 않았던 선물을 성모님으로부터 받았다. 성모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 교황님이 '실제로' 군중들에게 강연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마리아는 발현이 끝난 후 가까운 친구 몇 사람에게 교황께서 1981년 5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수로 끝났던 자신의 암살사건에 대해 말하고 계셨던 것을 들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 장면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 한 명이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앞면에는 전날 마리아가 설명한 것과 관련된 사진과 기사 제목은 그녀가 이미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교황님께서 하신 것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는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황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교황님을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와 그녀의 뺨을 토닥거리 주며 크로아티아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부디 도브라!" (좋은 일을 하여라.) **M**

- '메주고리에의 기적'에서 발췌 -



교황을 암살하려 했던 '알리 아가' 와 요한 바오로 2세의 만남

우주의 여왕 (9)

성모님의 발현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발현목격증인 이반카 - 2 -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움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질문 : 왜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질문 :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반카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용서를 청하는 죄인은 누구나 용서하십니다.

질문 : 이반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보았습니까?

이반카 : 저는 그림을 보듯 천국과 연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보고 싶지 않다고 성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반카 : 천국은 매우,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질문 :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까?

이반카 : 모든 사람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당신도 그런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반카 :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질문 : 천국에 있는 사람이 긴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지요?

이반카 : 네, 그렇지만 옷은 상관없습니다. 옷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 천국에 대해 좀더 말해 주겠습니까?

이반카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연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반카 : 어둠뿐이었습니다.

질문 : 천국과 연옥을 볼 때 꿈을 꿴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반카 : 저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왜 천국과 연옥을 보여 주셨나요?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곳 지상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질문 : 이반카,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는 적이 있습니까?

이반카 : 아니오,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한 심판관이십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질문 : 그러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반카 :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질문 :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반카 : 우리는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질문 :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반카 :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질문 :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반카 :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느낄 수 없으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최악의 슬픈 상태에서도, 그들은 더없이 기쁘고 만족스럽게 삽니다.

질문 :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느끼는 평화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반카 : 그렇습니다.

질문 : 어머니를 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반카 : 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시작한 초기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매우 친했던 저는 어머니가 없어서 몹시 외로웠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어머니 대해 아시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아신다면서, 어머니가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그 밖에 성모님께 어머니에 관해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이반카 : 제가 어머니를 볼 수 있는지 여쭙 봤습니다.



발현 목격 증인 이반카

질문 : 성모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반카 : 어머니가 돌아 가신 후 세 번 보았습니다!

질문 :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반카 : 어머니를 만나며 가장 좋았던 때는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성모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고 키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 이반카,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했

습니다.

질문 : 이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이반카 : 아니요, 긴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질문 : 이반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 집에서 나가 가다 보면, 어머니의 묘가 있는 공동묘지를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께서 살아 계신 듯이 돌아 가신 어머니의 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는 동안 기뻐했습니까?

이반카 : 그렇요, 무척 기뻐했습니다.

질문 :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당신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이반카 : 저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우리가 매일 바치는 사도 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 또 무엇을 더 알게 되었나요?

이반카 : 네,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직접 세 번이나 어머니를 보았으니까요. 제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실하면, 저도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질문 : 이반카, 당신은 늘 하느님을 갈망했습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저를 하느님께 데려다 주셨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사랑하는 자녀
들아! 오늘 나
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라고 너희
를 부르고 있다. 너희
삶이 끊임없는 기도가
되게 하여라. 사랑이 없으면 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생명의 창조주이
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라고 너희
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듯 너
희도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
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은총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선을 위해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
를 사랑한다. 너희를 가르치고, 회개하며 극기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야만, 너
희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또 지금은 너희와는 너무도 거리
가 먼 것만 같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
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2년 11월 25일 메시지)

이 마을에 사는 크로아티아 가족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갖기 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환영하며,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품에
안고 키운다. 그들은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아기를 하

느님의 선물로 여긴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오셔서
목격증인 아이들에게 보여주
신 성모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메주
고리에에서는 낙태란 존재하
지 않는다. 마약이나 자살 또
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낙태도 별천지에만
속한 것이었다. 목격증인들은 너무나 순진했
기 때문에 성모님께서서는 그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또 기도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일깨워주
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사악한 면을 목
격증인들에게 보여주
시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고 기도하여라

는 마리아에게 프리메이슨 운동, 사탄 숭배, 교황 암살 음
모 등등을 일러 주셨으며 엘레나에게는 사탄이 요즘 감행
하고 있는 파괴 활동 장면을 몇 가지 보여주셨다. 이를 본
목격증인들은 완전히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목격증인 미리
야나의 부모는 결혼하고 얼마 후에 메우고리예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예보의 2평 남짓한 셋집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 때 미리야나가 태어났다. 생활을 꾸려
가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일한 결과 그들은 좀 더 큰 집
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8년 후에 미리야나의 남동생이 태
어났다. 미리야나가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다.

"우리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일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언제나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
해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씩 바나나 2개를 사다 주
셨는데, 그 당시에는 몹시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먹지 않을까 봐 '우리는 바나나를 싫어한다! 무슨 이렇게 이상한 과일이 다 있는지, 원...'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잘 먹이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두 분으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공산당국의 협박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마음놓고 살 수가 없었지만 두 분이 가난과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제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하느님께 의지했고 저는 저를 낳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의 모든 것을 우리 성모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복되신 성모님을 뵈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전학한 그곳에서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동기생들 중에는 하느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낙태와 그 밖의 많은 죄를 짓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계속 발현하셨지만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감시와 염탐을 당하고 있었기에 행여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는 날이면 우리 부모님은 당장 직장을 잃게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기생 하나가 이런 말을 제게 하더군요. '나 오늘 낙태 수술하러 갈꺼야.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음악회에 다녀오려고 해!' 아이의 죽음과 음악회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친구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만 참지를 못하고 그녀의 뺨을 때려 주었습니다. 수녀님,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제 성격이 급했어요. 한 대 맞은 그녀가 다시 내 뺨을 치는 바람에 싸움이 크게 되자, 마침내 교장실에 불려 갔답니다."

"그 후 성모님께 그 일로 꾸지람을 듣지 않았나요?"

"그분께서는 뺨 때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훈계나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들을 단죄하지 말고 대신 그들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아이를 낙태시킨 부모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몹시 우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하느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낙태에 관해서만은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많은 보속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죽은 태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서는 많은 순례자들(낙태 수술로 아이를 버렸던 부모들)이 과거에 그들이 버린 어린이와 화해함으로써 아름다운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또 내적 치유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하느님과 화해한 부모들은 이제 그 아이를 무작정 기억 속에 묻어 버리려하지 않고 지금은 하늘 나라에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격체로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그 아이와 화해하기로 결심하고 마음 깊숙이 용서를 구하며 그 아이가 살아서 가족의 일원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와 관계를 깊게 하고 있다.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 이와 같은 화해와 낙태된 아기를 가족 안으로 환영하는 행위는 낙태를 경험한 부모에게 은혜의 원천이 되며 가족 내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근심하고 있는 독신 부모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마음을 넓히고 살아갈 수 있다. 낙태로 인해 어머니가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평화를 간직할 수 있고, 버린 아기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성모님께 맡겨 드렸기 때문이다. **M**

(임마누엘 수녀님의 메주고리에서의 기적 성심의 승리에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송금 후원 :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송금번호 : ABA# 031201467

구좌번호 : 2000012394184

크래딧 카드 후원 :

홈 페이지 www.qpmm.org의 '후원금'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카드 결제 안내가 나옵니다.

선교회는 가톨릭 비영리 법인체로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나를 찾아 오신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저는 늘 "나의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주일 미사와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 가려 하고 주어진 교회 일에 마다 않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으로 생활에 활력도 얻으며 교회는 늘 제 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너무 막연한 먼 나라 이야기 같기만 하였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며 그 물의 성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궁금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호흡을 하며 산소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경위로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미사에 가면 성체를 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미국의 작은 대학도시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 공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떨어진 본당에서 2주에 한 번, 때론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드려 주셨는데 소공동체 모임도 만들고, 없던 주보도 만들고, 금요일마다 성서모임도 하고, 신부님께 부탁 드려 가정방문도 하며 신나게

지내던 즈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로 화목했던 공소분위기가 많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빨리 회장 임기가 끝나기만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했던 공소일 중에 하나가 미사를 드린 후 미사 때 사용한 제대보와 성작포 등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세탁,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집에 오자마자 그것부터 삶아 말려서 정성껏 다려 놓곤 했는데 공소 분위기가 어려워지면서부터는 그렇게 은총으로 생각되던 일마저도 귀찮을 따름이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다음 미사가 있을 때까지 빨지도 않은 채 한쪽에 두었다가 미사 시작 몇 시간 전에야 부랴부랴 빨아서 다리미로 말려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한쪽에 두었던 성작포와 제대포를 미사 시작 몇 시간 전에야 급하게 빨아서 '이 지겨운 공소 회장 임기가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나?' 하는 생각에 한숨을 쉬며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너는 나를 위해 일을 하며 어찌하여 사람에게 칭송을 들으려 하느냐?"하는 음성인지 생각인지 모

나의 돌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져옴을 ...

를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깜짝 놀라 다림질을 멈추었는데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공소 일이 귀찮아졌는지 그 이유가 순식간에 이해되면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편안할 때는 사람들의 "회장이 잘 해서" 라는 칭송을 들으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신이 났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나 아닌 다른 곳으로 쏠리자 그것이 속상했던 것임을 ... 내 안에 깊숙히 숨어 있어 나도 몰랐던 내 참모습이 깨달아지며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지금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만지고 있는 이 수건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닦았던 수건이고, 예수님은 진정 성체 안에 살아 계심이 깨달아지며 나의 돌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져 옴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면병은(성체)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빵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부터 하루의 중심을 매일 미사에 두고 생활하게 되었는데 작년 말부터 FULL TIME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매일 미사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 출퇴근하며 두 군데 성당을 지나칠 때마다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 드리며 매일 성체를 못 모시는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주님 탄생예고 대축일이었던 지난 3월 25일, 아침에 일터에 와서 책상 앞에 앉아 묵상을 하다가 앞으로 9개월 동안 예수님을 몸 안에 모시고 사신 성모님이 부러워서 "성모님 저도 매일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제가 매일 미사를 드리며 할 수 있는 일을 제게 주세요." 라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드렸습니다. 그날은 온종일 "예수님 저도 매일 당신을 영하고 싶어요." 라는 화살기도를 드리며 지내고, 밤에 성당에 성가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연습 후에 잠시 감실 앞에 앉아서 "예수님 제가 매일 당신을 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는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미국 친구가 제 일터에 오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에 성체를 모시고 와서 기도 후에 저에게 성체를 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터에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체를 영한 기쁨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 전날 온종일 성체가 그림자며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 너무 놀랍기도 해서 도대

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며 그 친구에게 제가 전날 드린 기도의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또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침 미사 후에 있었다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미사 후에 늘 하는 것처럼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봉성체를 가기 위해 신부님께 성체를 받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 "OO에게도 성체를 가져다 주어라"라는 음성이 자꾸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봉성체는 환자를 위한 것이고 OO는 환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Bring me to her! Bring me to her!"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님께 말씀 드리고 저를 위해서 성체를 모셔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아주 생소하고 특별한 체험이었다며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나 또한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얼마나 행복하던지... 매일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대신 책상 앞에 놓인 예수님 상분을 보며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저도 알아요, 저보다 당신이 저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어요."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학교)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테레사, 남미자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나의 부족함과 작은 노력일지라도...

유난히도 추었던 긴 겨울이 지나고 진심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기다려진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손길 같은 봄 날의 햇살... 무엇을 보고 느껴야 변화되는 인간과는 달리 변함 없이 늘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유아적인 신앙생활속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나는 내가 존재하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어느 새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에 젖어 살며,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고 소리 없는 절규가 온 가슴을 메우고 있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우울증이란 말인가?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오늘의 내 모습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 생활이 왜 그토록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미국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처받고 힘들어 속은 곪아 터져도 겉으로는 내색도 할 수 없었던 한국에서의 생활 때문이었다. 그곳에서는 어느 집 며느리이고 아이들의 엄마라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힘을 내며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겉 모습 치장과 가식에 간혀 살아야 했다. 삶에 대한 가치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고 포장하면서 그것이 최선인양 살아 왔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이 한번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처럼 헛된 탑을 쌓는 듯한 허무함으로 '이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라고 처절하게 외치며 빛을 찾아 몸부림쳤다. 또한 남편과 나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어머님과과의 하루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



화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없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님은 부딪쳐 볼 수조차 없는 거대한 성이었다. 가슴을 파고 드는 날카로운 말들에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는 나도 사랑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비참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님도 나도 같은 신앙을 믿고 남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 모든 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모양 좋은 껍데기 일뿐, 속은 곪아 터지고 있었다. 나는 어느 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 거부감부터 들고 그 내면을 폭로 해버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평화를 잃고 내가 먼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무너져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나는 마치 탈출할 수 없는 늪 속에 빠진 듯이 절망하며 '이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라고 절망하였다. .

아침에 눈을 뜨면 열심히 부모님들의 기도소리를 먼저 들으며 자란 태중 교우였던 나는 이 모든 시련들을 신앙안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

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신앙안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 믿고 이해하며 살아 갈수 있다고 믿고, 성당 봉사와 레지오 활동에 열중하며 열중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그곳에 쏟으며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유아적인 믿음과 이상이었을 뿐 그곳도 사회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아니 믿었기에 그 실망은 더했다. 한국에서 부를 상징하는 중심지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물질과 능력의 소유를 인정받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었을까? 최고 학벌과 부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이들이 인정 받는 성당의 분위기와 외향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새 나도 그 안에서 부의힘을 과시하고,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좋은 것만 보이면서 그들처럼 살아 가고 있었다. 점점 그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 가는 내가 싫었다. 왜 이렇게 살아 가고 있을까?... 하느님은 이렇게 믿는 게 아닌데...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모실 때면 내게 오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억지로 모시는 죄의식으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떠나 온 미국행은 아이들의 교육이 목적이 아닌 지구 밖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나의 현실 도피였다. 나는 정말 다시는 되돌아 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웃으면서 한국을 떠나 정말 열심히 다시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며 미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미국 생활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 그 자체였다. 열심히 신자라고 했던 내가 성서 말씀과 기도,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 왔음도 알았다. 나는 성인들의 삶과 교회와 봉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곁에 있는 무늬만 보고 신자 생활을 해온 것 이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조용한 곳을 찾아 성체조배와 성서 말씀을 읽으며 열심히 기도했다. 나의 어릴적 기억들, 나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상처 준 모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게 내 탓이고, 당장 달려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청하고 싶었다. 이런 건 어떡하지?... 너무나 죄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다. 이런 내 모습을 진실과 순수함으로 받아 주는 미국 자매님들을 통해 주님의 손을 잡으며 한걸음 한걸음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럼에도 '치유와 은총의 시간'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성모님과 예수님이란 존칭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자

로서 두려운 이름이었다. 그러나 '폴비오 신부님과 알다 수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마리아"는 너무나도 나와 친근하시고 나를 위해 계시는 분들이심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총속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들의 어머니신 성모님은 발현하신 장소의 특이한 이름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 외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에 순명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용감한 어머니이셨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만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을 알았다. 피정을 하기 전에는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짜증에 빠져 지냈었다. 그러나 피정을 다녀 온 후 마음에 가득 찬 평화와 기쁨으로 평소에 짜증스러웠던 일들도 즐겁고 하루 종일 집 청소를 해도 피곤함이 없어졌다. 의무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나를 깨운 것이다. 이전의 나는 아이들보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 아이들의 마음 보다는 힘든 나를 더 생각하며 살았다. 엄마의 이러한 모습에 두려움까지 가졌던 큰 아이는 너무 힘들어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다. 둘째 아이도 편안함과 뜨거운 것이 가슴에 차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아이들과 나누었다. 평소에 유난히 성모신심이 좋은 큰 아이와 내가 피정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는데, 나의 체험을 듣고는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진정으로 함께 묵주기도를 했다. 매일 미사와 말씀에서, 성서의 주인공들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있었다. "치유를 통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피정을 통해 당신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고통을 더욱 깨달아 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함께 해주심을 믿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 노력에는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기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성모님께 의지하고 감사 드리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명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아멘 M

치유를 통해 오신 예수님

어느 날,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폴비오 신부님과 알다 수녀님을 초빙하여 '치유와 은총의 시간'이 뉴저지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좋은 일이기에도 나도 가고 싶었지만 시간을 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래도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때 문득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이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납치하듯이, 학교에서 행사를 끝낸 아이를 차에 태우고는 주말 일정을 다 포기한채 무작정 뉴저지로 향하였다. 운전내 내 특별한 기적을 기대해서 실망하기 보다는 피곤한 나의 몸과 마음을 봉헌하는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당에 도착했다. 이미 1,2부 강의는 끝나고, 마지막 치유예절과 미사만 남아 있었다.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바칠 때 흐르는 눈물은 슬픔보다는 기쁨이었고 불러주시는 은총에 감사할 뿐이었다. 먼 길을 와서 좋은 말씀을 못듣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태리 말은 몰라도 통역을 들으면서 신부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 몸이 먼저 알아 듣고 있었다. 신부님의 구마에 대한 말씀에서, 정말 선과 악이 뚜렷하게 우리 삶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미움, 두려움, 어두움, 간교함으로 다가와 사랑과 평화가 없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님께 대한 확신과 삶을 파괴한다는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둡고 무겁게 살아 온 나의 삶을 다시 돌아 보게



하였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에서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았던가? 사탄은 나로 하여금 삶에 회의를 갖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미사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게 만들어 주님께에서 멀어지도록 내게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두통이 너무 심해 하루에 진통제를 4알씩 먹어도 듣지를 않아 종종 눈을 감고 있거나, 머리 지압을 해야만 했다. 강의 시간에도 난 계속 눈을 감고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큰 아이를 낳고부터 아팠던 허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학교 생활로 무릎까지 몹시 아팠다. 머리, 목, 척추가 아파 몸을 가우똥하게 있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도 내 건강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왼쪽 어깨와 팔이 아파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비로서 '주님, 건강만은 주셔야겠어요!'하고 기도드린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치유 간증을 들으면 그것이 정말일까? 하고 믿기 어려웠다. 미사가 끝나고 치유 예절 때 알다 수녀님이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두려워졌다. 나는 무엇인가 나를 정말 힘들고 무겁게 해서 항상 기쁨보다는 걱정, 희망보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다.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어둡고 무거운 것에서 나를 해방 시켜 달라고... 그러면서도 '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성서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친근하신 예수님!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 보시던 예수님! 그 분이 하얀 드레스와 샌달을 신으시고 머리와 수염이 길게 난 모습으로 내게 가까이 오심을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이걸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오시는 분, 아니 같이 살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이셨다! 그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다.

치유 기도는 계속 되었다. 알다 수녀님은 목, 어깨, 손, 무릎, 두통이 있는 사람이 치유됐다고 차례로 말씀하셨다. 그 때 큰 불덩어리 같이 뜨겁고 강한 힘이 내 머리를 꼭 잡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 사랑하는 착한 나의 딸" 하시며 다가오셨다. 분명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난 성당 한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 그분을 위해 아무 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난 그분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며 소리도 낼 수 없이 울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간절 한 마음으로 청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다시 눈물이 난다. 통역하는 분이 치유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라는 말에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또, 무릎이 치유된 사람, 자궁근종이 있는 사람이 치유됐다고 했다. 난 한번 밖에 손을 들 수가 없었으나, 내게 필요한 치유는 다 받은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미사가 시작될 때, 박창득 몬시뇰께서 "치유는 이곳에서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됩니

다." 하신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 왔다. 정말 글로는 나의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후, 허리, 무릎, 어깨의 통증으로 운전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가 장거리 운전을 해도 아무 통증 없이 일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치유는 육체뿐 아니라 그 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어둠과 미움, 갈등을 이겨나가도록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갈까? ...

장거리를 쉬지 않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을 수 없이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배가 약간 뒤틀리며 아프더니 마치 양수가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뿌연 물이 터져나오면서 아랫배가 너무나 시원하고 가벼워졌다. 잠시 후, 다시 배에서 무엇인가 빠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어떤 물체가 퍽!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란 나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었다. 변기속에는 쭈글쭈글한 물주머니같은 창자 주머니, 혹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생긴 검붉은 보라색 물체 주머니가 보였다. 그동안 나도 모르고 있던 내 뱃속에 있던 자궁근종이 터진 것이었다. 그제서야 '자궁근종이 있었던 환자의 병이 나왔다.'고 하신 알다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평소에 끊어지듯이 아프던 허리의 통증이 자궁근종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허리를 똑바로 하고 있어도 허리와 아래배의 통증이 없고 물론 손과 오른쪽 다리도 치유 받아서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졌다. 박 몬시뇰신부님의 말씀처럼 그날의 치유는 집에 돌아 와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바랄뎠 진정으로 모든걸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예수님, 성모님..진심을 다해 너무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나의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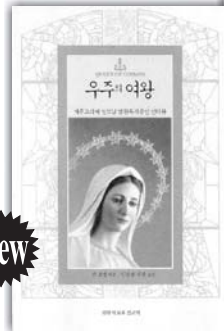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왜 성모님께서 지난 27 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시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이 책에서 목격 증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에의 부르심'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로 딸 및 성바로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이웃에게 성탄과 새해의 선물도 하시고 선교도 하세요.



**전품목
15% 할인**

- 엄마의 화살 기도(두숨 엮음)
- 우리 아이 성공으로 이끄는 10분 인생수업 (제이미 밀러 지음)
- 우리가 예수를 찾는(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1 & 2편)
-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이역 하늘 아래서(이석현 지음)
-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강길웅신부 지음)
- 존주성범(대 & 소) (토마스 아 켈피스 지음)
- 지혜로운 삶(짐 포 리스트지음)
- 피의 증거(황서영 백서를 찾아서)(전서권 지음)
- 한송이 해바라기처럼(고마태오 신부 지음)
- 행복을 위한 선택(최기산 신부 지음)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해인 수녀 지음)
- 화 제대로 내기(버트 게찌 지음)
-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박도식 신부 지음)
- 단팔뿔속에 남겨둔 행복(임경자 수상집)
- 내 안에 말씀이(이동호 신부 지음)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단계(마태오 린 지음)
- 믿음 희망 사랑(아베리오네 신부 영적가르침 (알베리오네 신부 지음)
- 하느님의 사람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소책자)
- 인격적 만남에의 초대(알버트 보드로우)
-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러(헨리 뉴엔)
-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키딩 지음)
- 침묵속의 만남(칼 라너 지음)
- 연옥 신탁(막심 뤼앙 지음)
- 시에나 성녀 가타리나의 가르침(따울라 지음)
- 희망의 영성(데군도 갈릴레아신부 지음)
- 토마스 머턴의 씨앗(토마스 머턴 지음)
- 무혈의 순교(변기영 신부 지음)
- 나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이상각 지음)

- 세계성서 공회와 한국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1000여종의 서적 그리고 성서, 성물, CD, Tape 구비 (도서 목록 email 발송)
-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여종의 서적과 성서, 성물, CD, Tape에 대한 목록을 e-mail 해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처 :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동희, 강은미, 강재복, 권금옥, 권미숙, 권선, 권숙자, 권효정, 광복화, 김건일, 김금성, 김남숙, 김마데라, 김만춘, 김명숙, 김명희, 김모니카, 김미희다리아, 김봉규, 김세록, 김숙영, 김아네스, 김영보, 김영서, 김옥천, 김원희, 김정연, 김정희, 김주희, 김학실, 김헬레나, 김혜숙, 김혜순, 김혜정, 김효정, 남순자, 노순재, 류기열, 문미숙, 문방자, 민정숙, 민장석, 민혜레나, 박글라라, 박순미, 박아가다, 박영실, 박영희, 박병칠, 박혜선, 박혜숙, 박희상, 박천혜, 백안셀모, 서애자, 서순희, 성문선, 성혜경, 손마리아, 신순덕, 신준호, 신진남, 신태경, 신혜경, 심세실리아, 안준애, 엄봉화, 엄토마스, 여애경, 오문영, 원순연, 유숙자, 윤경이, 윤형분, 이정성, 이계숙, 이근행, 이누시아, 이동희, 이명선, 이마리아, 이미애, 이병구, 이복희, 이선화, 이송자, 이소피아, 이순세, 이순형, 이승일, 이아름, 이영신, 이영옥, 이윤영, 이은경, 이은희, 이인덕, 이재순, 이종훈, 이창호, 이한우, 이해영, 임주자, 임효경, 장명숙, 장영아, 장영희, 장한순, 전연희, 전현숙, 정경근, 정금희, 정명좌, 정예자, 정운도, 정찬래, 제시카 김, 조성희, 조안나, 조은자, 지니김, 진도미니카, 차원경, 천혜영, 최상환, 최선영, 최인순, 최종금, 최종희, 황계자, 황영경, 황정애, 황중숙, 황혜정, 허성용, 허희선, 홍복희, 홍옥선, (캐나다) 정하상 바오로 공소회의 천주의 어머니pr, 익명

Kuk Yi, Yoon. Lee, Young Choe, I Kim, S. Oh, Henry Yerger, Sung Kim, In Sil Joung, Young S. Sin, C. Ziegmann, K. Kim, J. Rigoni, Tak . Lee, O. K, Joo Kim, Richard. Yu, Hae Lee, Eilleen Cho, Y. Anderson, Son Baker, Jae Kang, Mary Lee,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왔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회원님들의 정성으로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부의 개인 발송을 비롯하여 판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 한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 등 성모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원하는 모든 곳에 무료로 전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6,542.00
지출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0,511.67
잔액	- \$ 3,969.67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당신 가슴속에서 끊임 없이
 자라나도록 매사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일만 찾아서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그분 손으로 주시는 것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고의로는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하고,
 만일 잘못을 했을 때는 겸손하게 곧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마더 데레사-





신경남 신부님과 함께하는

메주고리에 와 드브로브닉 성모성지 순례



- ▶ 일 정 : 2009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9박 10일)
- ▶ 경 비 : \$2,300 / Washington Dulles (IAD) 공항 출발
- ▶ 순례안내 : 남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 ▶ 지도신부 :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프란시스코회, 평화의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Tel : 610-366-9612 | www.qpmm.org

